

『신자전』(新字典)의 복수 자석 연구*

서수백**

〈차 례〉

1. 머리말
2. 활용 자석 문헌 개관
3. 복수 자석 분석
4. 마무리

【국문초록】

이 연구는 『신자전』의 복수 자석(字釋)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여 『신자전』의 자전적 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1915년 조선광문회에 서 편찬한 『신자전』은 한학자 이인승을 비롯해 국어 학자 주시경, 김두봉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표제한자에 대한 자석이 매우 상세하고 실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전 시기의 자석을 유지하면서도 표제한자가 해독되는 다양한 문법 형태들을 자석으로 제시하거

* 이 논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 2023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조교수.

나 당대의 언어로 새롭게 제시하기도 한다.

『훈몽자회』, 『주해천자문』, 『자류주석』, 『자전석요』, 『신자전』에 공통으로 수록된 표제한자의 자석을 비교할 때, 『훈몽자회』, 『주해천자문』, 『자류주석』, 『자전석요』에는 동일한 자석 1개가 제시되었는데, 『신자전』에만 2개 이상의 한글 자석이 제시되는 표제한자가 82개이다. 82개 표제한자의 자석 개수는 2~7개 나타난다. 이 82개 표제한자의 복수 자석에서 『신자전』의 자석 특징이 실증적으로 드러난다. 『신자전』의 복수 자석은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을 매우 상세하게 나누어 각각의 한글 자석을 달았다. 또 유의 자석을 제시하거나, 문맥 쓰임에 따른 다양한 형태 표기와 품사 자석을 제시하여 표제한자의 정보를 풍부하게 담았다.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자전석요』와 비교할 때 자석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자전이 갖추어야 할 표제한자, 한자음, 자석, 용례 등이 꼼꼼하게 채워진 『신자전』은 우리의 어휘사, 사전학, 번역학 연구에 필수 자료로서 매우 귀중한 문헌이다.

주제어: 『신자전』, 『훈몽자회』, 『주해천자문』, 『자류주석』, 『자전석요』, 『전운옥편』, 복수 자석, 문법 자석, 유의 자석

1. 머리말

한자 자석(字釋) 문헌의 역사에서 살펴볼 때, 한자 학습과 이해를 수월하게 하도록 하는 학자들의 노력은 새로운 자석 문헌 편찬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났다. 최세진과 유희춘이 『천자문』과 『유합』이 한자초학서로서는 내용이 난해하고 비실용적인 표제한자들이 많음을 지적하여 새롭게 편찬한 『훈몽자회』(1527)와 『신증유합』(1576), 표제한자마다 1개 자석이 제시되어 있는 『천자문』을 절반

이상의 표제한자에 2~5개의 복수 자석을 제시한 『주해천자문』(1804), 정윤용이 『훈몽자회』의 취지를 확장하여 표제한자 수록을 대폭 늘리고 그것을 의미에 따라 정밀하게 분류한 『자류주석』(1856), 20세기에 와서는 한글 자석과 한자음을 단 지식영의 『자전석요』(1909)와 이인승, 주시경, 김두봉 등이 참여하여¹⁾ 편찬한 『신자전』(1915)이 있다. 이처럼, 편찬된 문헌의 한계를 짚고 보완하여 새로운 서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문헌 간 정보 수록을 비롯한 체재의 차이가 드러난다. 1915년에 편찬된 『신자전』은 한글 자석과 한문 자석의 대응이 이전 시기 한자 자석 문헌들에 비해 매우 정밀하고 실용적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자전석요』와 비교하면 『신자전』이 『자전석요』보다 자석이 훨씬 풍부하고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²⁾ 따라서 『신자전』의 자석을 분석 연구하는 것은 어휘 연구는 물론이고 사전학, 번역학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자전』의 자석에 집중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서재극(1976)에서 『신자전』에 나오는 한글 자석 중 사전에 나오지 않고 문헌 자료에서도 찾기 어려운 난해하고 희귀한 자석 어휘 다수를 보여준다. 여찬영(2003a)에서는 『자전석요』에 ‘-일

1) 新字典叙(신자전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今日の成이 有케 하기는 實로 石儂柳瑾氏오 涉獵과 討究에 爲力이 許多한 肯沙 李寅承 圓泉 南基元 兩氏의 勞도 甚多하며 朝鮮訓釋에 對하야는 故 한헌샘 周時經 白淵 金料奉 兩氏의 用心이 頗勤하얏스며”

2) 문헌의 편찬 목적이나 전거 문헌에 따라 그 체재나 정보 수록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이 동일한 자전류이지만 『자전석요』가 『신자전』에 비해 정보 수록이 간략한 것은 『자전석요』 凡例(범례)에 “此書專爲訓蒙而作(차서전위훈몽이작)”으로 밝힌 바와 같이 『자전석요』가 아동의 한자 학습과 교육을 위해 정한 편찬 방향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자전석요』의 표제한자 수가 『신자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6,000자 이상이라는 점이나, 『자전석요』의 총칭적 자석은 한문 주석을 통해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문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함' 형태로 제시되는 총칭적 의미의 한글 자석들을 한문 자석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 규명하였다. 전일주(2006)에서는 『강희자전』과 『자전석요』, 『신자전』의 체재, 자음 자의(字義)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자전 편찬에 중국 자전 『강희자전』이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 이준환(2012b)에서는 『신자전』의 체재와 한자음, 자석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봄에 자석 수록의 특징을 짚었다. 이들은 『신자전』의 자석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이들 선행연구에서 밝힌 『신자전』의 특징과 가치 정보를 더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신자전』의 자석 연구의 일환으로 『신자전』에 수록된 표제한자에 대한 복수 자석 제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이전 시기 문헌과의 비교는 필수이다. 자석의 개신적 양상을 보여주는 문헌 『훈몽자회』, 『주해천자문』, 『자류주석』, 『자전석요』와 『신자전』을 비교한다. 수록 표제한자 수가 가장 적은 『주해천자문』을 기준으로 5개 문헌에 공통으로 수록된 표제한자 중 『훈몽자회』, 『주해천자문』, 『자류주석』, 『자전석요』에 한글 자석이 1개만 제시된 것이 『신자전』에는 2개 이상의 복수 자석으로 제시되는 82개 표제한자를 대상으로 『신자전』 복수 자석 양상을 살펴본다. 이 82개 각 표제한자의 자석의 개수는 적게는 2개 많게는 7개까지 제시되었다. 이들이 어떻게 복수의 자석을 나타내는지 살펴본다.

2. 활용 자석 문헌 자료 개관

『신자전』의 복수 자석 분석을 위해 본고에서 비교 문헌으로 활용한 4개 자석 자료 문헌 『훈몽자회』, 『주해천자문』, 『자류주석』, 『자전석요』와 주 연구 대상 자료 『신자전』³⁾을 개관한다.

3) 본고의 대상 문헌은 1915년 조선광문회에서 편찬한 『신자전』이다. 이는

1) 『훈몽자회』(1527)

1527년(중종 22)에 최세진(崔世珍, 1473~1542)이 편찬한 한자초학서이다. 『천자문(千字文)』과 『유합(類合)』이 당시에 보편적인 한자초학서였는데 이것이 초학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난해하고 비실용적인 글자가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자(實字) 중심으로 표제한자 3,360자를 수록하고 각 표제한자에 한글 자석과 한자음을 달고 부분적으로 한문 자석을 병기하였다. 상, 중, 하권에 표제한자가 각각 1,120자씩 수록되었는데 상권과 중권의 표제한자는 각각 16개의 의미 분류항목에 따라 수록되었다. ‘雜語(잡어)’로 분류명명한 하권에는 추상적 개념의 표제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한자학습서로서 당대 혁신적인 양상을 띤 『훈몽자회』는 그간 음운, 어휘, 저자, 분류 체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자석 연구에서는 기본 자료로서 필수 비교 대상 문헌으로 폭넓게 활용되었다.

2) 『주해천자문』(1804)

각 표제한자의 자석이 1개씩 제시되었던 종래의 『천자문』의 체재를 보완하여 전체 수록자 1000자 중 500자 이상의 표제한자에 2~5개의 자석을 달고 복수의 한자음도 수록하였다. 특히 주해(註解)를 더하여 표제한자의 정보를 더욱 상세히 보여준다. 『주해천자문』에서 표제한자에 대한 자석의 개수는 최대 5개까지 있는데 5개 자석이 제시되는 표제한자는 ‘經(경)’, ‘矜(궁)’, ‘當(당)’, ‘敦(돈)’, ‘率(률)’, ‘散(산)’, ‘素(소)’, ‘屬(속)’, ‘食(식)’, ‘厭(염)’, ‘要(요)’, ‘委(위)’, ‘任(임)’, ‘將(장)’, ‘適(적)’, ‘次(차)’, ‘稱(칭)’, ‘解

1973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영인 출판하였다.

(해)', '行(행)'으로 총 19개이다. 복수 자석이 특징인 『주해천자문』은 자석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헌이다. 그러나 『주해천자문』을 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매우 적은 실정이다.

3) 『자류주석』(1856)

『훈몽자회』의 취지를 확장하여 1856년에 수암 정운용이 편찬한 분류어휘집이다. 수록된 표제한자의 수가 10,800여 자이고 이들을 35개 분류항목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각 표제한자마다 한글 자석과 한자음, 한문 자석이 충실히 기록되어 있다. 『훈몽자회』에 비해 수록 표제한자가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자석 정보도 이전의 한자초학서나 분류어휘집을 뛰어넘는 수준을 보여준다. 한글 자석도 상세 의미로 제시된 것이 매우 많고 한문 자석이 매우 세밀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하여 『자류주석』에는 한글 자석이 같은 다수의 표제한자들이 한문 자석에 따라 그 의미가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석 자료로서 매우 특징적 양상이 많은 문헌이지만 『자류주석』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 연구도 매우 적은 상황이다. 2000년 이후에 『자류주석』의 자석 연구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4) 『자전석요』(1909)

지석영이 1909년에 편찬한 2권 1책 구성의 자전으로 수록 표제한자가 16,300여 자이다. 『강희자전』,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을 전거 삼아 한글로 자석과 한자음을 표기하고 간략한 한문 자석도 병기하였다. 자석의 의미를 부연하는 삽화도 부록으로 584개나 제시한다. 자전이지만 표제한자의 자석의 개수나 의미가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다. 이는 『자전석요』 범례에 명시되어 있는 “此書專

爲訓蒙而作(차서전위훈몽이작)”에서 아동의 한자 학습과 교육을 위한 것이 편찬 목적이고 주 독자층인 아동에게 맞춘 자석 방식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신자전』(1915)과 비교할 때 자석 수록의 차이 확연히 드러난다. 『자전석요』의 체제, 한자음, 자석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신자전』(1915)

1915년에 최남선이 발간한 자전이다. 4권 1책으로 수록된 표제 한자는 6000여 자이다. 최남선이 쓴 ‘叙(서)’가 있으나 최남선이 실제로 집필에 참여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⁴⁾ 이 책의 편찬은 류근(柳瑾)이 주도했고 이인승, 남기원, 주시경, 김두봉, 최성우 등 한학자와 국어학자가 참여하여 편찬한 자전이다.⁵⁾ 『강희자전』, 『규장전운』, 『전운옥편』을 기본 전거 문헌으로 삼았다. 앞선 시기의 『자전석요』에 비해 한글 자석, 한문 자석, 한자음, 용례까지 매우 정밀하게 표제한자의 정보를 기록한 자전이다. 한글 자석과 한문 자석을 일대일로 대응하여 복수로 자석을 제시하기도 하고 경서(經書)의 내용을 용례로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삽화를 제시하여

4) 이는 이준환(2012b:119~120)에서도 “편찬 겸 발행자는 최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신자전』 편찬을 조선광문회에서 주관하였고, 조선광문회 주간이 최남선이었기 때문이다. 통상 『신자전』이 최남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나 자전의 원고 작업을 실제로 최남선이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5) 최남선이 쓴 ‘新字典叙’에 “今日の成이 有케 하기는 實로 石僕柳瑾氏로 涉獵과 討究에 爲力이 許多한 肯沙 李寅承 圓泉 南基元 兩氏의 勞多 甚多 하며 朝鮮訓釋에 對하야는 故 韓紳 周時經 白淵 金科奉 兩氏의 用心이 頗勤하얏스며 其外 直接間接으로 材料와 意見을 寄與한 이는 煩不必提며 此書의 收結이 이러듯 完美함을 得하기는 字劃의 校勘과 印刷의 監董에 對한 默齋 崔誠愚 氏의 精勵勤勞에 負함이니”로 나온다. 최남선이 집필에 참여하고도 본인의 이름을 적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표제한자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전 시기의 한글 자석을 유지하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자석을 덧붙임으로 자석의 보수성과 개신성을 함께 보여준다. 그간 『신자전』의 한자음, 체재, 자전사적 위상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자석 연구에서도 비교 대상 문헌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신자전』의 자석에 집중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3. 복수 자석 분석

3.1 2자석 분석

『훈몽자회』, 『주해천자문』, 『자류주석』, 『자전석요』, 『신자전』⁶⁾에 공통으로 수록된 표제한자⁷⁾의 자석 비교에서 16세기 『훈몽』에서부터 19세기 『주천』, 『자류』, 20세기 『석요』에까지 동일한 의미의 자석 1개가 제시되는데, 『신자』에는 2개 자석이 제시되는 표제한자는 38개이다. 『신자』에 제시된 2개 자석을 보면 상호간에 의미의 상세화, 다의화, 유의화 등 의미적 연관성이 드러난다.⁸⁾ 특성에 따라 『신자』의 2개 자석 표제한자 38개를 분류하여 목록으로 제시하고 그 양상을 살펴본다.

6) 이하 『훈몽』, 『주천』, 『자류』, 『석요』, 『신자』로 약칭한다.

7) 수록 한자 수가 가장 적은 『주해천자문』을 기준으로 5개 문헌에 공통으로 수록된 표제한자는 480여 자이다.

8) 표제한자에 대한 자석이 의미관계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의미 연관성을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1) 상세 자석

기본적으로 『신자』의 복수 자석은 의미의 상세화 내지는 다양화를 공통 성격으로 드러낸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의미적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표제한자가 한문 해독에서 쓰이는 의미 정보로 이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한 표제한자 17개는 『신자』의 2개 자석이 의미 상세화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예들이다.

번호	한 자	『훈몽』	『주천』	『자류』	『석요』	『신자』
1	日	나	날	날	날	날, 해
2	月	들	들	들	달	달, 한 달
3	霜	서리	서리	서리	서리	서리, 해지날
4	雲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은하수
5	體	몸	몸	몸	몸	몸, 몸바들
6	躬	몸	몸	몸	몸	몸, 몸소
7	人	사름	사름	사름	사람	사람, 남
8	嫡	덕실	덕실	덕실	정실	큰마누라, 맞아들
9	楹	기둥	기둥	기둥	기둥	기둥, 하관틀
10	酒	술	술	술	술	술, 무술
11	裳	츄마	치마	치마	치마	치마, 성할
12	絲	실	실	실	실	실, 사수
13	飛	날	날	날	날	날, 녀섯말
14	烹	솔물	솔물	솔물	삶을	삶을, 지질
15	器	그릇	그릇	그릇	그릇	그릇, 그릇다울
16	談	말슴	말슴	말슴	말할	말삼, 바둑돌
17	政	정스	정스	정스	정사	정사, 바르게할

위에서 『훈몽』, 『주천』, 『자류』, 『석요』의 1개 자석 양상을 보면 ‘談(담 16)⁹⁾’을 제외한 표제한자의 자석이 모두 품사와 의미가 같다. ‘談(담)’은 『석요』에서 동사 ‘말할’로 제시되었다. 『훈몽』, 『주천』, 『자류』, 『석요』의 1개 자석은 『신자』에도 모두 제시되어 있다. 자석의 제시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嫡(적 8)’을 제외하고 모두 이전 문헌¹⁰⁾에 제시된 자석이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다.¹¹⁾ ‘嫡(적)’은 한자어 ‘정실(正室)’의 고유어 또는 구어 형태라 할 수 있는 ‘큰마누라’가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다. ‘月(월 2)’의 자석 ‘달, 한 달’, ‘體(체 5)’의 자석 ‘몸, 몸바들’, ‘躬(궁 6)’의 자석 ‘몸, 몸소’, ‘人(인 7)’의 자석 ‘사람, 남’, ‘器(기 15)’의 자석 ‘그릇, 그릇다울’은 두 자석 상호 간에 의미의 구체화 또는 세분화를 알 수 있다. ‘人(인 7)’의 경우, 자석 ‘사람’과 ‘남’은 대응하는 한문 자석이 각각 ‘動物之最靈者(동물지최령자)’ ‘己之對他人(기지대타인)’ 다. 한문 자석에 따르면 ‘사람’은 개념적 의미를 나타내고 ‘남’은 ‘나가 아닌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자석 ‘남’은 ‘사람’의 세부 의미라 할 수 있다. ‘日(일 1)’의 자석 ‘날, 해’, 霜(상 3)’의 자석 ‘서리, 해지날’과 ‘雲(운 4)’의 자석 ‘구름, 은하수’는 의미 범주가 모두 ‘천문(天文)’에 속하고, ‘嫡’의 자석 ‘큰마누라, 맞아들’은 ‘친척어’ 의미 범주에서 공통 의미 자질 [첫째]가 있다. ‘烹(팽 13)’의 자석 ‘삶을, 지질’은 모두 ‘조리법’의 의미 범주에 속하는 연관성이 있다.

‘櫛(영 9)’의 자석 ‘기동, 하관틀’, ‘酒(주 10)’의 자석 ‘술, 무술’, ‘裳(상 11)’의 자석 ‘치마, 성할’, ‘絲(사 12)’의 자석 ‘실, 사수’, ‘飛

9) ()안의 번호는 제시한 표에 있는 일련번호이다.

10) 이는 본고에서 비교 대상 문헌으로 활용한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한정하여 가리킨다.

11) 복수 자석에서 자석의 제시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문헌 집필자에 따라 표제한자의 핵심 의미를 우선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짐작한다. 즉 여러 전거 문헌을 참고하여 자석을 제시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자석을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다.

(비 13)'의 자석 '날, 녀섯말', '談(담 16)'의 자석 '말삼, 바둑돌', '政(정 17)'의 자석 '정사, 바르게할'은 두 자석 간에 의미적 연관성은 없는 이의 자석이다. 여기에서는 이전 문헌에서 제시하지 않은 자석¹²⁾을 추가로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상세 자석으로 분류하였다.¹³⁾ 『훈몽』, 『주천』, 『자류』, 『석요』의 자석을 유지하면서도 자석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자서(字書)로서의 정체성이나 실용적 가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의 자석

『신자』에 제시된 2개 자석이 상호 유의성을 지닌 예들이다. 모두 10개 표제한자가 이에 해당한다. 자석의 유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번 호	한 자	『훈몽』	『주천』	『자류』	『석요』	『신자』
1	桐	머귀	머귀	오동	오동	머귀, 오동
2	貞	고든	고들	곧을	곳을	고들, 구들
3	鳳	봉황	봉황	봉황	봉	아시, 봉새
4	西	섯녁	셔녁	서入녁	서녁	하쪽, 셔녁
5	城	갓	성	성	성	갓, 재
6	赤	불글	불글	붉을	붉을	붉을, 빨갈
7	古	네	네	예	예	예, 비릇을
8	卑	늑가을	늑줄	유비	니줄	나줄, 천할
9	肥	술질	술질	살덜	살질	살질, 이질
10	千	즈믄	일천	일천	천	즘즈믄, 일천

12) 『훈몽』, 『주천』, 『자류』, 『석요』의 한글 자석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13) 용어 설정에 관한 심사의견대로 이는 '병렬 자석'으로 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나 여기에서는 이전 문헌에 제시되지 않은 자석을 추가로 제시하여 표제한자의 의미를 상세화한 것으로 보고 '상세 자석'으로 분류한다.

‘桐(1)’의 경우 『훈몽』과 『주천』에는 고유어 ‘머귀’로 나오고 『자류』에서부터 자석이 한자어 ‘오동’으로 제시되었다. ‘머귀’는 ‘머귀 나무’를 뜻하는데 이는 ‘오동나무’의 옛말로 현대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신자』에 자석 ‘머귀’의 한문 자석 ‘梧桐木名(오동목명)’을 볼 때 ‘머귀’와 ‘오동’은 유의어임을 알 수 있다. 『신자』에서는 16세기의 자석도 그대로 유지하며 정보를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신자』에서 ‘貞(정 2)’의 자석 ‘고들’과 ‘구들’은 제시된 한문 자석을 보면 각각 ‘正也(정야)’, ‘固也(고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물리적 의미보다는 ‘성정(性情)’의 차원에서 볼 때 유의어로 볼 수 있다.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자석 ‘굳다(固)’는 하나도 없고 자석이 모두 ‘곧다(正)’이다. ‘鳳(봉 3)’의 자석 ‘아시’¹⁴⁾는 한문 자석이 ‘雄鳳雌鳳(웅봉자봉)’으로 되어 있다. 이는 ‘봉황새’, ‘봉새’를 가리키는 말로 ‘아시’와 ‘봉새’는 유의어이다. ‘아시’는 『신자』에만 제시되어 있는 자석이다. ‘西(서 4)’의 자석 ‘하쪽’은 한문 자석 ‘日入方(일입방)’에서 ‘해가 지는 방향’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쪽’과 동일한 의미이다. 따라서 자석 ‘하쪽’과 ‘서녁’은 유의어이다. 이전 문헌에는 모두 ‘서녁’으로만 나온다. ‘城(성 5)’의 자석 ‘жат’과 ‘재’도 유의어임을 한문 자석 ‘城郭築土盛民(성곽축토성민)’ 아래 자석이 ‘жат재’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жат’은 ‘성(城)’의 고유어이고, ‘재’는 ‘고개’ 의미 이외에 건축물¹⁵⁾의 의미가 있다. 『훈몽』에는 자석이 ‘жат’으로 나오고 이후 『주천』, 『자류』,

14) 현대국어 사전에서도 표제어 ‘아시’의 풀이는 “‘봉황’을 달리 이르는 말.”로 되어 있다.

15)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 ‘재’의 뜻풀이로 “고려·조선 시대에 국가감·성균관·사학(四學)·향교(鄕校)·정사(精舍)·서원(書院) 따위에 딸린 유생(儒生)의 기숙사. 건물 위치에 따라 동재(東齋)·서재(西齋)로 나누었고, 성균관의 경우 상재(上齋)와 하재(下齋)로 구분하여 상재에는 생원(生員)·진사(進士)들이 거처하고, 하재에는 전국 각지에서 뽑힌 유학(幼學)들이 거처하였다.”가 있다.

『석요』에는 ‘성’으로 나오는데, 『신자』에 자석 ‘성’은 없고 ‘젯’과 ‘재’가 자석으로 제시된 것은 특이하다. ‘赤(적 6)’의 자석 ‘붉을, 빨갈’은 색채의 유의성을 나타낸다. ‘古(고 7)’의 자석 ‘예’와 ‘비릇을’은 시간적 의미에서 유의성을 알 수 있다. 자석 ‘예’의 한문 자석은 ‘昔也(석야)’이고 ‘비릇을’의 한문 자석은 ‘始也(시아)’이다. 과거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지닌 복수 자석으로 분류하였다. 자석 ‘비릇을’은 『신자』에만 나온다. ‘卑(비 8)’의 자석 ‘나צל’과 ‘천할’은 ‘성정(性情)’의 의미 범주에서 유의성을 파악할 수 있다. 두 자석의 한문 자석은 각각 ‘下也(하야)’, ‘賤也(천야)’로 되어 있는데 ‘下也(하야)’는 물리적 의미에서 ‘높이’나 ‘위치’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휘 ‘낮다’의 다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류』에 자석이 ‘유비’로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한문 자석은 ‘象小封又低小屋(상소봉우저소옥)’으로 나온다. 『신자』에 ‘象小封又低小屋(상소봉우저소옥)’을 자석으로 모두 제시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肥(비 9)’의 자석 ‘살질’과 ‘이질’은 한문 자석 ‘多肉(다육)’, ‘膚革充盈人之肥(부혁충영인지비)’을 볼 때 ‘살찌다’의 기본 의미에서 유의성을 찾을 수 있다. ‘千(천 10)’의 자석은 ‘즈믄’과 ‘일천’은 모두 수 ‘1000’을 의미한다. 『훈몽』에만 고유어 ‘즈믄’으로 나오고 『주천』, 『자류』, 『석요』에는 모두 ‘일천/천’으로 나온다. 『신자』에는 고유어와 한자어 자석 두 가지 모두 제시하였는데 ‘즈믄’은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이 형태이다.

유의성을 지닌 『신자』의 복수자석은 당대의 언어로만 표시하지 않고 이전 시기에 기록된 고어/고유어 형태의 어휘들도 자석으로 함께 제시하면서 유의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표제 한자에 대한 의미 정보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고전의 해독에 유용성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문법 자석

‘新字典叙(신자전서)’에 의하면 『신자』 집필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학자 이인승과 국어학자 주시경, 김두봉이 있다. 주시경과 김두봉은 『국어문법』(1898), 『조선말본』(1916)을 저술한 학자로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을 한글 자석으로 옮기는 데 문법 형태를 구체화하여 독자들이 한문을 해독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석을 다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2개 자석의 문법적 형태가 다르게 제시된 표제한자는 11자이다.

번호	한 자	『훈몽』	『주천』	『자류』	『석요』	『신자』
1	地	싸	싸	따	싸	싸, 쌍
2	冬	겨스	겨을	겨을	겨을	겨을, 겨우
3	彼	더	저	저	저	저, 저것
4	暑	더울	더을	더을	더위	더위, 더을
5	笑	우숨	우음	우습	우슬	우음, 웃을
6	盜	도죽	도죽	도적	도적	도적, 훔칠
7	觴	잔	잔	잔	잔	잔, 잔질할
8	黃	누를	누르	누루	누를	누루, 누를
9	光	빋	빋	빈	빋날	빋, 빋날
10	俯	구불	구불	굽을	굽으릴	굽을일, 굽을
11	二	두	두	두	둘	두, 둘

‘문법 자석’으로 분류한 11개 표제한자의 자석은 품사, 어미, 표기 등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이다. ‘地(지 1)’는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싸/따’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데 『신자』에는 자석 ‘싸’도 있고 중성 표기가 있는 ‘쌍’도 제시되어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에 ‘쌍을 꼭고 묻고져 흐더니 掘地欲埋(굴지욕매)’(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1:1 孫順得鍾(손순득중)), ‘쌍에 업

데여 仆地'(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5:27 俞氏投井(유씨투정))로 표기 '쟁'이 나오는데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ㅈ'만을 자석으로 제시하고 『신자』에서는 'ㅈ', '쟁' 모두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冬(동 2)'의 자석 '겨울'과 '겨우'는 유의어¹⁶⁾로서 '겨우'는 '겨울'의 'ㄴ 탈락'형으로 합성어 '겨우살이'에 쓰였다. '겨우'는 고어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다. 이전 시기 문헌 중 『자류』에 『신자』와 동일한 형태의 자석 '겨울'이 제시되었고 『훈몽』에는 '겨스', 『주천』, 『석요』에 '겨울'로 비원순모음 형태로 제시되었다. '彼(피 3)'의 자석 '저'와 '저것'은 지시 기능의 대명사이다.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는 '더/저/저'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국어 문법에서 '저'와 '저것'은 품사 기능의 차이가 있다. '저'는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저 여자', '저 집'과 같이 뒤에 명사와 함께 쓰일 때는 지시 관형사로서 쓰인다. '저것'은 사물을 지시하거나 사람을 낮잡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囍(서 4)', '笑(소 5)', '盜(도 6)'의 자석도 품사가 다른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囍(서 4)'는 명사와 형용사의 자석인데 '더울'은 전통적으로 한자 자석을 제시할 때 쓰는 어미 형태로서 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쓰임과는 다르다. 형용사 '덥다'의 관형격 어미는 '-ㄴ'이다. 이전 문헌에 제시된 '囍(서 4)'의 자석을 보면 품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석요』에 명사 '더위'가 제시되었고 그 이전의 『훈몽』, 『주천』, 『자류』에는 모두 '더울'이 제시되어 있다. '笑(소 5)'와 '盜(도 6)'는 명사와 동사 자석이 제시되었다. '웃을', '흠칠'은 전통적 자석 제시 형태이기도 하고 국어에서 '웃을 일'과 같이 관형격 어미가 쓰인 형태이기도 하다. 이전 시기 문헌에 제시된 笑(소 5)와 盜(도 6)의 자석을 보면 '盜(도 6)'는 모두 '도죽/도죽/도적/도적'으로 명사 자석만 제시되었다. '笑(소 5)'는 『훈몽』, 『주천』, 『자류』에는 '우습/우음/우습'으로

16) 『신자』에 한문 자석 대응이 '閉藏節 겨울○겨우'이다.

명사 자석이 제시되었고 『석요』에는 동사 자석 ‘우슬’이 제시되었다. ‘觴(상 7)’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명사 ‘잔’이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신자』에는 이와 달리 명사 ‘잔’과 동사 ‘잔질하다’¹⁷⁾ 두 개 자석이 제시되었다. ‘黃(황 8)’의 자석 ‘누루’와 ‘누를’은 모두 형용사인데 ‘누루’는 ‘누루다’의 어간 형태이고 ‘누를’은 관형격어미 ‘-ㄴ’을 쓴 전통적 자석 제시 방식의 형태이다. 이전 시기에도 ‘黃(황 8)’의 자석은 ‘누를/누르/누루/누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光(광 9)’의 자석도 명사 ‘빛’, 동사 ‘빛날’ 2개이다. 이전 시기에 ‘光(광 9)’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에는 명사 ‘빛/빔’인데 『석요』에는 동사 ‘빛날’이다. 이들이 『신자』에는 모두 제시된 것이다. ‘俯(부 10)’의 자석 ‘굽을일’과 ‘굽을’은 동일한 동사이지만 ‘동작성’과 ‘상태성’의 의미 차이가 있다. ‘굽을일’은 동작성의 어휘인 반면 ‘굽을’은 상태성을 지닌 어휘이다. ‘굽을’은 전통적 자석 제시 방식의 표기이기도 하다. 이전 시기 문헌에 ‘俯(부 10)’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에는 상태성을 지닌 어휘 ‘구불/구불/굽을’로 나오고 『석요』에는 동작성을 지닌 ‘굽으릴’로 나온다. ‘二(이 11)’의 자석 ‘두’와 ‘둘’은 각각 수관형사, 수사 자석이다. 문헌에 나타나는 ‘二(이)’의 자석 제시 방식 표기는 ‘두’가 일반적이다. 국어 사용에서 ‘두’와 ‘둘’은 ‘두 사람’, ‘학생 둘이 간다’와 같이 수관형사, 수사로 쓰인다. 『훈몽』, 『주천』, 『자류』에 ‘二(이 11)’의 자석은 모두 ‘두’로 나오고 『석요』에는 ‘둘’로 나온다. 이상에서 볼 때 『신자』의 복수 자석은 표제한자의 의미가 한 문 번역이나 실질적인 국어 사용에서 쓰이는 형태를 자석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17) ‘잔에 술을 따르다.’ ‘잔에 술을 따라 돌리다.’의 뜻이다.

18) 이준환(2012b:136)에서도 ‘也’, ‘之’, ‘乎’, ‘以’의 자석을 예로 들어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였다. 『신자』에서는 ‘也’, ‘之’, ‘乎’, ‘以’의 풀이로 ‘어조사’, ‘입결’, ‘잇기’로만 하지 않고 ‘~라(也)’, ‘의(之)’, ‘온~아(乎)’, ‘썸, 로’ 등과

3.2. 3자석 분석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1개 자석으로 나오는데, 『신자』에는 3개 자석이 제시되어 있는 표제한자는 모두 22개이다. 『신자』에 제시된 3개 자석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본다.

1) 상세 자석

『신자』의 3개 자석 상호 간의 의미적 연관성이 의미 상세화로 파악되는 표제한자는 14개이다.

번호	한 자	『훈몽』	『주천』	『자류』	『석요』	『신자』
1	晝	낮	낮	난	낮	낮, 대낮, 한낮
2	林	수풀	수풀	슈풀	수풀	니습풀, 습, 더북더북날
3	母	어미	어미	어미	어미	어미, 어머니, 장모
4	東	동녘	동녘	동녘	동녘	시, 동녘, 오른쪽
5	貢	바틸	바칠	받틸	바칠	바틸, 천거할, 세바틸
6	貽	줄	줄	줄	줄	끼칠, 줄, 검은자개
7	謹	삼갈	삼갈	삼갈ㅅ	삼갈	삼갈, 공경할, 오로지
8	夕	나죄	나죄	저녁	저녁	저녁, 저물, 쓸릴
9	口	입	입	닙	입	입, 어구, 인구
10	紙	조히	조히	조의	조히	조히, 종이, 편지

같은 문법 형태의 자석들을 제시함으로써 교착어인 한국어의 특징에 맞게 한문을 번역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11	讚	기릴	기릴	기릴	칭찬할	밝을, 도울, 기릴
12	尺	자	자	자	자	자, 열치, 법
13	飽	빅브를	빅불을	빅불을	배부를	배부를, 먹기실힐, 물릴
14	羊	양	양	양	양	양, 노닐, 상양새

위 표를 보면 ‘讚(찬 11)’을 제외한 13개의 표제한자는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동일한 자석 1개가 일관되게 제시되어 있다. ‘讚(11)’은 『훈몽』, 『주천』, 『자류』의 자석이 동일하고 『석요』에는 ‘칭찬할’이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이전 문헌의 자석이 『신자』에도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데 ‘讚(찬 11)’의 자석 ‘칭찬할’은 『신자』에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晝(주 1)’는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기본 층위 단어 ‘낮/날’이 자석인데 『신자』에는 ‘낮’뿐만 아니라 ‘낮’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대낮, 한낮’이 자석으로 추가 제시되어 있다. ‘林(림 2)’은 이전 시기 문헌의 자석 ‘수풀/수풀’이 『신자』에는 ‘풀이 난 모양’을 알 수 있는 의미의 자석 ‘더북더북날’을 비롯해 ‘나습풀’, ‘습’이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나습풀’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신자』의 한문 자석을 보면 ‘叢木(총목)’으로 되어 있다.¹⁹⁾ ‘母(모 3)’의 자석은 이전 시기 문헌에서 ‘어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자』에는 ‘어미’뿐만 아니라 ‘어머니’, ‘장모’가 추가 제시되었다. 한문 자석이 ‘父之配(부지배)’로 ‘어미’와 ‘어머니’는 유의 자석 제시로 상세화하였다.²⁰⁾ ‘장

19) 서재극(1976)에서 『신자』의 수록된 자석 중 희귀어와 난해어들을 제시 분석하였는데 사전이나 문헌에 찾기 어려운 어휘들이기에 그 의미를 명료하게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사전이나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희귀어들을 추출한 것만으로도 『신자』의 자전적 가치를 실증한 귀중한 연구이다.

20) 현대어에서 ‘어미’는 ‘어머니’의 낮춤말로 쓰인다.

모'는 '어미', '어머니'의 의미를 확장한 자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문 자석 '聘母妻母(빙모처모)'로 남편의 관점에서 처의 어머니를 일컫는 말이다.²¹⁾ '東(동 4)'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동녀/동녀/동녀'로 일관된다. 『신자』에는 한문 자석 '日出方(일출방)' 아래 '시, 동녀, 오른쪽' 3개 자석이 나란히 제시되었다. 제일 먼저 제시된 자석 '시'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은데, 자석 '동녀, 오른쪽'과 같은 방향을 뜻하는 어휘이거나 시간의 뜻 '時(시)'로 짐작된다.²²⁾ '貢(공 5)'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바틸/받틸/바칠' 1개 자석이 제시되었는데 『신자』에는 구체적인 의미의 자석 '세바틸'과 '천거하다'가 추가 제시되었다. '貽(이 6)'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동일하게 '줄/줄'인 데 비해 『신자』에는 '끼칠, 줄, 검은자개' 3개 자석이다. 제시의 순서도 이전 시기 문헌의 자석 '줄'보다 '끼칠'을 먼저 제시했다. '謹(근 7)'도 이전 문헌에는 모두 '삼갈/삼갈'로 나오는데 『신자』에는 '삼갈, 공경할, 오로지' 3개 자석을 제시하였다. 『신자』에서 '삼갈, 공경할, 오로지'에 대응하는 한문 자석을 보면 '愼也(신아비아)', '敬也(경야)', '專也(전야)'로 각각 다르다. '夕(석 8)'의 자석은 『훈몽』과 『주천』에는 고어 '나죄'로, 『자류』와 『석요』에는 '저녁'으로 나오는데, 『신자』에는 '저녁'을 비롯해 동사 어휘 '저물'과 '쏟릴'이 추가 제시되었다. '口(구 9)'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입/넙'으로 나온다. 이에 비해 『신자』에는 '입, 어구, 인구' 3개가 나오는데, '입, 어구, 인구'는 어휘 '입'의 다의성을 드러내는 자석들이다. '紙(지 10)'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고어 형태인 '죠희/죠희/죠희'로

21) 아내의 관점에서 남편의 어머니를 일컫는 '시어미/시어머니'는 『훈몽』, 『주천』, 『자류』, 『석요』, 『신자』 모두 '姑'의 자석으로 나온다.

22) 조선시대 아동초학서 『계몽편(啟蒙篇)』 '天篇'에 '日出則爲晝日入則爲夜(해가 나오면 낮이 되고, 해가 들어가면 밤이 된다.)'가 나온다.

나온다. 『신자』에는 ‘조히, 종이’로 고어와 현대어 표기 형태가 모두 나오고 확장된 의미 ‘편지’도 자석으로 제시되어 있다. ‘讚(찬 11)’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에 ‘기릴’로 나오고 『석요』에는 ‘칭찬할’로 나온다. 『신자』에는 ‘밝을, 도울, 기릴’로 이전 문헌에 나오는 자석 ‘기릴’은 마지막에 제시했고, 『석요』의 자석 ‘칭찬할’은 제시하지 않았다. ‘尺(척 12)’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동일하게 ‘자/쟈’로 나온다. 『신자』에는 ‘자’, ‘열치’, ‘법’ 3개 자석인데, 수량 단위에서 ‘열 치’가 ‘한 자’에 해당하므로 ‘자’와 ‘열치’는 유의성이 분명하다. ‘법’은 수량 단위명사가 아니라 ‘법률’을 뜻한다. ‘자’, ‘열치’와는 다른 의미의 자석이다. 이는 ‘삼척법(三尺法)’을 뜻하는 데 ‘삼척법’은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 “고대 중국에서 석 자 길이의 죽간(竹簡)에 법률을 썼던 데서 유래한다.” ‘飽(포 13)’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비브를/비불을/비불울/배부를’로 나온다. 『신자』에는 ‘배부를’, ‘먹기실힐’, ‘물릴’ 3개 자석이 나오는데, 한문 자석은 구별되어 있다. ‘배부를’은 ‘食充滿(식충만)’으로, ‘먹기실힐’, ‘물릴’은 ‘厭也飫也(염야어야)’로 되어 있다. ‘배부를’, ‘먹기실힐’, ‘물릴’은 문맥에 따라 유의적으로 쓰일 수 있다.

2) 유의 자석

『신자』의 3개 자석이 상호 간에 유의성을 지닌 표제한자는 ‘五(오)’, ‘妾(첩)’ 2개이다.

번 호	한 자	『훈몽』	『주천』	『자류』	『석요』	『신자』
1	五	다섯	다섯	다스	다섯	닷, 다섯, 다사
2	妾	고마	첩	첩	첩	고마, 가직이, 첩

‘五(1)’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는 ‘다섯/다스/다섯’인데 『신자』에는 한문 자석 ‘數名(수명)’ 아래 ‘닷’, ‘다섯’, ‘다사’ 3개 형태가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 이 중 ‘다스/다사’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이를 문법 자석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다섯’의 문법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²³⁾ ‘妾(2)’의 자석은 『훈몽』에 ‘고마’로 『주천』, 『자류』, 『석요』에는 ‘첩/첩’으로 나온다. 『신자』에는 같은 의미의 자석 ‘고마’, ‘가직이²⁴⁾’, ‘첩’이 한문 자석 ‘側室不聘(측실불빙)’ 아래 나란히 제시되었다.

3) 문법 자석

번호	한 자	『훈몽』	『주천』	『자류』	『석요』	『신자』
1	四	넉	넉	넉	넷	넷, 넉, 네
2	誰	누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무엇, 누구요
3	貴	귀홀	귀홀	귀홀	귀할	귀할, 낚홀, 귀이어 길
4	臣	신하	신하	신하	신하	중, 신하, 두려울
5	寸	막디	치	마디	치	치, 마디, 세알일
6	歌	놀애	노래	노릭	노래	노래, 읊조릴, 장단마칠

23) ‘닷’이 수관형사로서 여러 단위명사와 쓰인 예가 문헌에서 다수 보인다.

쌀 혼 말 닷 되 잇느니(삼강행실도 열녀편28)

믈 닷 홉애 달혀(구급간이방6:7)

부즈와 계피 갓근 솥 각 닷 량과(구급간이방1:29)

술윗 바회에 무든 홀 닷 돈을 촌물에 프러(구급간이방1:36)

술 닷 마래 즈마 두닐웨어든(구급간이방1:91)

닷 분에 혼 말 조박리오(번역노걸대상:9)

24) 현대어 표기로는 ‘가지기’인데 ‘정식 혼인을 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는 과부나 이혼녀’를 뜻한다.

‘四(사 1)’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에는 ‘넛’으로, 『석요』에는 ‘넛’으로 나오는데 『신자』에는 한문 자석 ‘數名(수명)’ 아래 ‘넛’, ‘넛’, ‘네’ 3개 형태가 나란히 제시되었다. ‘넛’과 ‘네’는 수 관형사로 쓰일 때 단위명사에 따라 구별하여 쓰고 ‘넛’은 수사로 쓰인다는 문법 정보를 알 수 있는 자석 제시로 보인다.

‘誰(수 2)’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동일한 자석 ‘뉘/누구’가 제시되었다 이에 반해 『신자』에는 ‘누구’, ‘무엇’, ‘누구요’ 3개가 제시되었다. ‘누구요’는 존대의 보조사 ‘요’가 결합한 형태로 의문문에 쓰이는 형태이다. 한문 자석은 ‘孰也(숙야)’, ‘何也(하야)’, ‘何詰問(하힐문)’으로 각각 대응된다. ‘貴(귀 3)’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동일하게 ‘귀힐/귀할’로 나온다. 『신자』에는 ‘귀할’, ‘놈’, ‘귀이여길’ 3개 자석이 제시되었다. ‘귀할’, ‘놈힐’은 한문 자석이 ‘位高尊也(위고존야)’로 ‘존귀(尊貴)’를 뜻한다. ‘귀이여길’의 한문 자석은 ‘物不賤(물불천)’으로 ‘만물이 천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귀할’, ‘놈힐’이 형용사이고 ‘귀이여길’이 타동사라는 문법 차이가 있으면서 의미적으로 유의성을 띤다. ‘臣(신 4)’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동일하게 ‘신하/신하’로 나온다. 『신자』에는 ‘중’, ‘신하’, ‘두려울’ 3개 자석이 제시되었는데 ‘중’과 ‘신하’는 한문 자석이 ‘事君之稱(사군지칭)’으로 상호 유의 자석이다. ‘중’은 화자의 입장에서 겸양칭에 해당한다. ‘두려울’은 한문 자석이 ‘主臣惶恐之辭(주신황공지사)’로 군신(君臣)의 관계에서 ‘임금을 섬기는 자세’ 정도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자』에 ‘臣(신 4)’의 자석은 명사와 형용사로서 표제 한자의 쓰임을 보이고 있다. ‘寸(촌 5)’의 자석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치’ 또는 ‘마되/마되’로 나온다. 『신자』에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치’, ‘마되’, ‘세알일’ 3개 자석이 제시되었다. ‘치’, ‘마되’는 한문 자석이 ‘度名十分(도명십분)’로 단위 명사로서 유의 자석이며 ‘세알일’²⁵⁾은 한문 자석이 ‘村也’로 동사 ‘세다’, ‘헤아리

다’ 즉 ‘수량을 세다’의 뜻이다. ‘歌(가 6)’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동일하게 명사 ‘놀애/노래/노리’로 나온다. 『신자』에는 명사 ‘노래’뿐만 아니라 동사 ‘읍조릴’, ‘장단마칠’이 추가 제시되었다.

3.3. 4자석 분석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1개 자석이 제시되었는데 『신자』에는 4개 자석이 제시되어 있는 표제한자는 모두 11개이다. 이들은 상세 자석과 유의 자석으로 나뉜다.

1) 상세 자석

번호	한 자	『훈몽』	『주천』	『자류』	『석요』	『신자』
1	駒	막야지	믹야지	믹야디	두해된말	매지, 망아지, 애말, 등걸
2	聲	소릭	소릭	쇼릭	소래	소리, 풍류, 소리들릴, 기릴
3	名	일흠	일흠	일음	일흠	이름, 일흠, 이름질, 공
4	牆	담	담	담	담	담, 차면담, 옥, 사모할
5	仄	기울	기울	기울	기우러질	기울, 물팔팔흐를, 이삭씩들어설, 돈이름
6	忠	통덩	충성	충성	충성	고들, 충성, 정성껏할, 공변될
7	功	공붓	공	공	공	공, 년, 공치사할, 복입을

25) ‘세다’, ‘헤아리다’의 뜻으로 경북 방언에 ‘세아리다’가 있다.

‘駒(구 1)’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에 ‘막야지/믹야지/믹야디’로 나오고 『석요』에는 구체적인 의미 [나이]가 드러나는 자석 ‘두해된말’로 나온다. 한문 자석도 ‘二歲馬(이세마)’로 되어 있다. 『신자』에는 ‘매지, 망야지, 애말, 등결’ 4개 자석이 제시되었는데 ‘매지²⁶⁾, 망야지, 애말’은 한문 자석 ‘二歲馬(이세마)’ 아래 나란히 제시된 유의 자석이다. 『석요』와 동일한 한문 자석 ‘二歲馬(이세마)’이지만 구체적 연수(年數)를 표시한 ‘두해된말’은 자석으로 쓰지 않았다. 자석 ‘등결’은 이전 문헌에 없는 자석으로 한문 자석이 ‘株駒枯樹本(주구고수본)’으로 ‘망야지’와는 다른 식물류 자석이다. ‘聲(성 2)’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소리/쇼릭/소래’ 하나만 제시되었는데 『신자』에는 ‘소리’, ‘풍류’, ‘소리들릴’, ‘기릴’ 4개가 제시되었다. 각각의 한문 자석이 ‘음也(음야)’, ‘樂也(악야)’, ‘聲教(성교)’, ‘名譽(명예)’로 구별하였다. 이는 이전 문헌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한 자석에 비해 의미를 상세하게 제시한 것이다. ‘名(명 3)’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일흠/일흠/일음/일흠’ 하나가 제시되었는데 『신자』에는 ‘이름, 일흠, 이름질, 공’ 4개 자석이다. ‘이름’과 ‘일흠’은 표기의 차이로 ‘일흠’은 이전 시기 문헌의 자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사 ‘이름질’은 ‘名(명)’의 문맥 쓰임을 보여주고 ‘공(功)’은 ‘이름’의 확장 의미로 다의성을 드러낸다. ‘牆(장)’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담’으로 나온다. ‘담, 차면담, 옥, 사모할’로 4개 자석이 제시되어 있다.²⁷⁾ 『신자』의 4개 자석은 각각의 한문 자석 아래 제시되었는데 ‘담’ 이외에도 ‘담’의 구체적 의미를 나타내는 자석 ‘차면담²⁸⁾’과 ‘담을 두른 감옥’의 의미 ‘옥(圓牆獄也)’,

26) 자석 ‘매지’는 고어사전이나 현대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7) 『신자』에 표제한자 ‘牆’은 ‘牆同(장동)’으로 풀이되어 있어 ‘牆(장)’의 자석을 제시하였다.

28) ‘차면담’은 “집 안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집 앞에 쌓은 담”을 뜻한다. <표

‘추모(追慕)’의 의미 ‘사모할(羹牆追慕)’이다. ‘仄(측 5)’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기울/기우러질’로 나오는데 『신자』에는 ‘기울, 물팔팔흐를, 이삭씩들어설, 돈이름’ 4개가 제시되었다. 『신자』의 자석 4개는 상호 간 이의적(異義的)인데 이것은 전거 문헌²⁹⁾에 ‘仄(측)’의 정보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전운옥편』에 표제한자 ‘仄’(측)의 자석이 ‘不正月行遲仄慳流貌溷仄禾密貌穠仄錢名赤仄(불정월행지측悭류모벽측화밀모벽측전명적측)’으로 나온다. ‘忠(충 6)’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통덩/충성/충성/충성’ 1개만 제시되었다. 이에 비해 『신자』에는 ‘고들, 충성, 정성씻할, 공변될’ 4개 자석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각각의 한문 자석에 대응하는데 ‘直也(직야)고들’, ‘盡心不欺(진심불기)충성’, ‘竭誠(갈성)정성씻할’, ‘無私(무사)공변될’로 나온다. ‘功(공 7)’의 자석은 『훈몽』에 ‘공뵓’, 『주천』, 『자류』, 『석요』에는 모두 ‘공’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비해 『신자』에는 ‘공, 년, 공치사할, 복입을’로 4개 자석이 제시되어 있다. 한문 자석 ‘績也(적야)’ 아래 ‘공○년’이 있어 ‘년’이 ‘공’과 유의적 단어임을 알 수 있는데, 사전에 ‘년’은 나오지 않아 ‘년’의 구체적 의미를 알 수 없다. ‘공치사할’은

중국어대사전>

- 29) 『신자』은 『강희자전』과 『전운옥편』을 기본 전거 문헌으로 삼았다. ‘新字典序(신자전서)’, ‘新字典例(신자전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康熙字典字作本位以邦文邦語解(강희자전자작본위이방문방어해)(新字典序(신자전서))

朝鮮字學以全韻玉篇爲準而字劃或有差爽故博考古文釐正(조선자학이전운옥편위준이자획혹유차상고박고고문리정)(新字典例(신자전례))

此書字次一遵全韻玉篇而體例從泰西字書其添入字亦遵玉篇例分韻編定(차서자차일준전운옥편이체례종태서자서기첨입자역준옥편례분운편정)(新字典例(신자전례))

此書用康熙字典爲臺本剪其繁衍補其闕漏兼收新製之字新增之義以應新時代之用故名曰新字典(차서용강희자전위대본전기번연보기필루겸수신제지자신증지의이응신시대지용고명왈신자전)(新字典例(신자전례))

한문 자석이 ‘自以爲功之(자이위공지)’로 ‘공치사’의 뜻 그대로 ‘ 스스로 공을 말하다’의 뜻이다. ‘복입을’은 한문 자석 ‘喪服曰大功小功(상복왈대공소공)³⁰⁾’에서 ‘상복(喪服)을 입다’의 뜻임을 알 수 있다.

2) 유의 자석

『신자』에 제시된 4개 자석이 상호 유의성을 보이는 예이다. 이에 해당하는 표제한자는 ‘根(근)’, ‘孝(효)’, ‘姿(자)’, ‘起(기)’ 4개이다.

번호	한 자	『훈몽』	『주천』	『자류』	『석요』	『신자』
1	根	불휘	불휘	썰의	썰희	뿌리, 밋, 밋동, 대
2	孝	효도	효도	효도	효도	효할, 효도, 만길, 어베잘섬길
3	姿	양죇	즈턱	즈품	태도	맷시, 바탕, 태도, 성품
4	起	닐	닐	닐	니러날	일, 일어날, 괴동할, 설

‘根(근 1)’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불휘/불희/썰의/썰희’ 하나이다. 이에 비해 『신자』에는 ‘뿌리, 밋, 밋동, 대’로 4개 자석이 제시되었다. 한문 자석과의 대응은 ‘抵也(저야)뿌리’, ‘本也(본야)밋○밋동’, ‘木株(목주)대’로 각각 되어 있다. ‘밋’과 ‘밋동’은 같은 한문 자석에 나란히 나와 유의 자석임을 알

30) 대공(大功): 오복(五服)의 하나. 굵은베로 지은 상복이다. 대공친의 상사에 아홉 달 동안 입는다.

소공(小功): 오복(五服)의 하나. 약간 가는베로 지은 상복이다. 소공친의 상사(喪事)에 다섯 달 동안 입는다. 『표준국어대사전』

수 있고, ‘썩리’와 ‘대’는 한문 자석을 달리하여 의미를 변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썩리, 밋, 밋동, 대’가 공통으로 식물의 ‘근본’, ‘밑’을 뜻한다는 점에서 유의 자석으로 본다. ‘孝(효 2)’의 자석도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효도’ 하나인데 『신자』에는 ‘효할, 효도, 만길, 어베잘섬길’ 4개 자석이다. ‘효할’이나 ‘어베잘섬길’은 명사 자석 ‘효도’를 풀이한 자석으로 볼 수 있다. ‘만길’은 고어사전이나 현대어 사전, 방언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어휘이다. 한문 자석 ‘善事父母(선사부모)’ 아래 ‘효할○효도○만길○어베잘섬길’이 나란히 제시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만길’은 ‘효할○효도’와 유의 자석임을 알 수 있다. ‘姿(자 3)’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각각 ‘양죃’, ‘즈틱’, ‘즈품’, ‘태도’로 나온다. ‘양죃’, ‘즈틱’, ‘즈품’, ‘태도’는 모두 ‘모양새’를 뜻하는 유의어이다. 『신자』에는 ‘맵시, 바탕, 태도, 성품’ 4개 자석이 제시되었는데 ‘맵시, 바탕, 태도, 성품’은 사람의 내외적인 모양새를 뜻하는 유의 자석으로 볼 수 있다. 한문 자석의 대응을 보면 ‘맵시, 바탕, 태도’는 ‘態也(태야)’에, ‘성품’은 ‘性也(성야)’에 대응되었다. ‘맵시, 바탕, 태도’는 사람의 외적인 모양으로 가시적이고, ‘성품’은 사람의 내적인 모양으로 추상적이라는 의미적 차이가 한문 문맥에 따라 선택적으로 쓰일 수 있다. ‘起(기 5)’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에 ‘닐’로, 『석요』에 ‘니러날’로 나온다. 『신자』에는 이들을 종합하여 ‘일, 일어날, 기동할, 설’ 4개 자석이 제시되었다. 한문 자석의 대응은 ‘興也(흥야)일○일어날’, ‘起居舉事動作(기거거사동작)기동할’, ‘立也(립야)설’인데 ‘일이 일어나다’의 뜻과 ‘사람의 일어나는 동작’ 두 가지 뜻으로 어휘 ‘일어나다’의 다의관계의 뜻을 나타낸다.

3.4. 5자석 분석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는 모두 1개 자석만 제시되어 있는데 『신자』에만 5개 자석이 제시되어 있는 표제한자는 ‘寒(한)’, ‘家(가)’, ‘囊(낭)’, ‘福(복)’, ‘愚(우)’, ‘妍(연)’ 6개이다. 제시되는 자석의 수가 많을수록 자석 상호 간의 의미 연관성을 하나의 일관된 특징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자석 상호 간의 의미적 연관성이 복잡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의 5자석 이상의 복수 자석은 ‘상세 자석’, ‘유의 자석’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寒(한)’, ‘家(가)’, ‘囊(낭)’, ‘福(복)’, ‘愚(우)’, ‘妍(연)’의 5자석 상호 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번호	한자	『훈몽』	『주천』	『자류』	『석요』	『신자』
1	寒	출	출	출	찰	찰, 치물, 어려울, 그만골, 썰일
2	家	집	집	집	집	집, 나나, 남편, 셔방, 용한이
3	囊	늑몫	주머니	쥬머니	주머니	쭈치, 주면지, 자루, 바람구멍, 썩들네할
4	福	복	복	복	복	복, 아름다울, 착할, 상서, 음복할
5	愚	어릴	어릴	어릴	어리석을	어리석을, 지더릴, 미웁할, 흐릴, 우준할
6	妍	고을	고을	고을	고을	아당할, 고을, 어엿블, 총명할, 안존할

‘寒(한 1)’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출/찰’ 하나이다. 이에 비해 『신자』에는 ‘찰, 치물, 어려울, 그만골, 썰일’ 5개 자석이 제시되었다. 한문 자석과의 대응을 보면 ‘冬氣暑

之對(동기서지대)찰○치물³¹⁾, ‘窮窘(궁군)어려울’, ‘歎也(헐야)그만골³²⁾, ‘戰慄(전율)떨릴’로 이전 문헌에서 일관되게 제시된 감각의 의미 ‘차다’를 유지하면서 ‘어렵다/가난하다’, ‘그만두다/쉬다’, ‘떨리다’의 의미를 추가하여 표제한자의 의미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家(가 2)’의 자석도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집’으로 일관되게 나오는데 『신자』에는 ‘집’을 비롯해 ‘나나, 남편, 셔방, 용한이’ 4개 자석이 추가되었다. ‘집’의 한문 자석은 ‘居也(거야)’이고 ‘나나, 남편, 셔방’의 한문자석은 ‘婦謂夫(부위부)’이며 ‘용한이’의 한문 자석은 ‘有專長者(유전장자)’이다. 자석 ‘나나’와 ‘용한이’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 어휘인데 한문 자석을 볼 때 ‘나나’는 ‘남편, 셔방’과 같은 ‘지아비’의 의미로, ‘용한이’는 ‘용한 이(사람)’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囊(낭 3)’의 자석은 『훈몽』에는 ‘주머니’의 고어 형태인 ‘늑몏’으로 나오고 『주천』, 『자류』, 『석요』에는 ‘주머/쥬머니’로 나온다. 『신자』에는 ‘쥬치, 주먼지, 자루, 바람구멍, 썩들네할’ 5개 자석이 제시되었는데, ‘쥬치, 주먼지, 자루’는 한문 자석 ‘有底囊(유저탁)’에 대응하는 유의 자석이다. ‘쥬치’와 ‘주먼지’는 ‘주머니’의 방언형인데 ‘쥬치’는 경남, 제주 지역어이고 ‘주먼지’는 경기, 전남, 제주, 충남, 평북 지역어이다. 자석 ‘바람구멍’의 한문 자석 ‘土囊大穴(토낭대혈)’이고, ‘썩들네할’의 한문 자석은 ‘倉囊亂貌(창낭란모)’이다. ‘썩들네할’³³⁾은 사전에 없는 어휘인데 한문 자석을 볼 때 ‘주머니가 흩어져 있

31) ‘치물’은 한문 자석에서 ‘차다’의 의미를 지닌 감각 어휘로 보이는데, 사전에는 나오지 않아 구체적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신자』에는 이러한 난해어 내지 희귀어들이 상당수 있다. 이를 서재극(1976)에서 언급하였다.

32) ‘그만골’도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어휘다. 한문 자석에서 ‘그만두다’, ‘쉬다’의 의미를 알 수 있다.

33) 고어에 ‘썩드다’가 있는데 이는 ‘들추다’의 뜻으로 현대어로는 ‘떠들다(가리거나 덮인 물건의 한 부분을 걷어 찢히거나 쳐들다)’이다.

는 모양' 또는 '지갑이나 주머니가 여기저기 터진 모양' 정도의 뜻으로 보인다. '福(복 4)'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복'이다. 『신자』에는 '복, 아름다울, 착할, 상서, 음복할'로 5개 자석이다. 『신자』의 5개 자석은 '祐也(우야)', '休也(휴야)', '善也(선야)', '祥也(상야)', '祭祀胙肉(제사조육)'로 각각의 한문 자석이 있는데, 이 중 '休也(휴야)'를 '아름다울'로 제시한 것은 특이하다. 문헌에 '休(휴)'의 한글 자석은 일반적으로 '쉴/쉬일'로 나오기 때문이다. 『석요』와 『신자』에 같은 음의 표제한자 '休(휴)'의 자석 '아름다울/아름다울'³⁴⁾로 나오는데 이와 '休'의 자석을 동일하게 제시한 것일 수도 있다. 『전운옥편』에서 표제한자 '福'의 자석을 보면 '祐也德也順之名祭祀胙肉(호야덕야순지명제사조육)'으로 '美也(미야)'나 '休也(휴야)'는 없다. 그렇다면, 『신자』 집필자가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을 한글 자석으로 옮길 때 전사(轉寫)와 해독을 정확하게 하였는지도 짚어 봐야 할 문제이다.³⁵⁾ '愚(우 5)'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에까지 '어리석다'의 고어형인 '어릴'로 자석이 나오고 『석요』와 『신자』에는 '어리석을'로 제시되었다. 『신자』에는 '어리석을' 이외 '지더릴, 미옥할, 흐릴, 우준할' 4개 자석이 추가 제시되었다. '어리석을, 지더릴, 미옥할'은 같은 한문 자석 '癡也(치야당야)'에 대응되어 유의 자석임을 나타낸다. 고어사전에는 '지더리다'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미옥하다'는 표제어 '미옥다'로 수록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풀이에 따르면 '지더리다'는 "성품이나 행실이 지나치게 더럽고 야비하다."는 뜻이고, '미

34) 대응하는 한문 자석은 '美也'로 되어 있다.

35) 『신자』의 한문 자석과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에서 '祐也'와 '祐也'의 차이도 있다. 그러나 『전운옥편』과 『신자』의 자석이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신자』의 자석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자』 편찬자들은 『강희자전』과 『전운옥편』을 기본 전거 문헌으로 하면서 경서(經書)를 비롯하여 참고한 문헌이 많고 한문 자석을 당대 언어 현실에 맞는 한글 자석으로 제시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육하다’는 “하는 짓이나 됨됨이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이다. ‘妍(연 6)’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고을’ 하나이다. 이에 비해 『신자』에는 ‘아당할, 고을, 어엿블, 총명할, 안존할³⁶⁾’ 5개 자석이다. 자석 ‘고을’보다 ‘아당할’이 먼저 제시되었다. ‘고을, 어엿블, 총명할, 안존할’이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아당할’은 ‘아침하다’의 뜻으로 부정적 의미의 자석이다. 추가된 자석 ‘아당할, 어엿블, 총명할, 안존할’은 ‘媚也(미야)’, ‘麗也(려야)’, ‘美好(미호)’, ‘慧也(혜야)’, ‘安也(안야)’로 한문 자석이 각각 구별 제시되어 있다.

3.5. 6자석 분석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는 모두 동일한 의미의 자석이 1개 제시되어 있는데 『신자』에는 6개 자석이 제시되어 있는 표제 한자는 ‘樓(루)’와 ‘官(관)’ 2개이다. 『자류』이나 『석요』의 경우 한글 자석은 하나이지만 한문 자석을 상세히 달기도 하였는데 『신자』은 한문 자석과 한글 자석이 거의 일치되는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신자』은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을 한글 자석으로 충실하게 반영한 것을 알 수 있다.

번 호	한 자	『훈몽』	『주천』	『자류』	『석요』	『신자』
1	樓	다락	다락	다락	다락	층집, 다락, 되봉오리, 문루, 억개, 모들
2	官	구의	벼슬	벼슬	벼살	벼슬, 말, 관가, 부림, 공번넬, 맛홀

36) ‘안존하다’는 ‘편안하다’는 뜻 이외에 형용사로서 ‘성품이 안전하고 조용하다’는 뜻이 있다.

‘樓(루 1)’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다락’으로 나온다. 『신자』에는 ‘다락’ 이외에 ‘층집, 뽕오리, 문루, 억개, 모들’ 5개 자석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한문 자석과의 대응을 보면 ‘重屋(중옥)층집, 다락’, ‘岑樓山之銳嶺(잠루산지예령)뽕오리’, ‘譙樓城樓(초루성루)문루’, ‘玉樓兩肩(옥루량견)억개’, ‘聚也(취야)모들’로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건축과 관련한 자석으로 보인다. ‘官(관 2)’의 자석은 『훈몽』에는 ‘관아(官衙)’를 뜻하는 고어 ‘구의’로, 『주천』, 『자류』, 『석요』에는 ‘벼슬/벼슬/벼살’로 제시되었다. 『신자』에는 ‘벼슬, 말, 관가, 부림, 공변될, 맞힐’ 6개 자석이 나온다. 이들은 각각의 한문 자석 ‘職也(직야)’, ‘朝廷治事處(조정치사처)’, ‘使也(사야)’, ‘公也(공야)’, ‘司也(사야)’로 의미를 분명히 한다.

3.6. 7자석 분석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는 모두 동일한 의미의 자석이 1개 제시되어 있는데 『신자』에는 무려 7개 자석이 제시되어 있는 표제한자는 ‘旦(단)’와 ‘毛(모)’ 2개가 있다. 이전 문헌의 자석에 비해 『신자』에서 세밀하고 풍부한 자석을 보여주는 특징이 보다 뚜렷이 드러나는 예이다.

번 호	한 자	『훈몽』	『주천』	『자류』	『석요』	『신자』
1	旦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새벽, 일찍, 이틀, 밝을, 간직할, 밤새
2	毛	터럭	터럭	털억	털	터럭, 털, 니차레, 반증셀, 풀, 뒤할, 양

‘므(단 1)’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아춤/아춤/아침’으로 나온다. 이에 비해 『신자』에는 ‘아춤, 새벽, 일즉, 이를, 밝을, 간척할, 밤새’ 7개 자석이 제시되었다. ‘아춤, 새벽, 일즉, 이를, 밝을, 간척할, 밤새’의 한문 자석을 보면 ‘朝也(조야)’, ‘曉也(효야)’, ‘早也(조야)’, ‘明也(명야)’, ‘(므므懇惻款誠(단단간즉 관성))’, ‘(盍旦夜鳴求旦之鳥(합단야명구단지조))’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간척할’을 제외한 ‘아춤, 새벽, 일즉, 이를, 밝을, 밤새’는 ‘날이 샌 시점’의 시간 의미이고 ‘간척할’은 『시경(詩經)』에 나오는 ‘므(단)’의 용례 ‘信誓(므므(신서단단))’에 근거한 자석으로서 ‘진실한 맹세’의 뜻이다.³⁷⁾ ‘毛(모 2)’의 자석은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모두 ‘터럭/털억/털’ 1개인데 『신자』에는 ‘터럭, 털, 나차레, 반증셀, 풀, 튀할, 양’ 7개가 제시되었다. 한문 자석과의 대응을 보면 ‘眉髮之屬毫也(미발지속호야)터럭○털’, ‘燕毛序齒(연모서치)니차레’, ‘二毛髮斑白(이모발반백)반증셀’, ‘草也(초야)풀’, ‘去毛(거모)튀할’, ‘羊也(양야)양’으로 각각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燕毛序齒(연모서치)’는 중용 19장에 나오는 ‘毛(모)’의 용례이다.³⁸⁾ ‘燕毛序齒(연모서치)’는 잔치에서 모발의 색깔로 나이를 분별하고 그에 따라 자리를 정하는 것을 뜻한다. ‘齒(치)’는 나이를 뜻하는 것이니 ‘齒序(치서)’는 나이 차례이다. ‘튀할’은 ‘튀하다’로 “새나 짐승을 잡아 뜨거운 물에 잠깐 넣었다가 꺼내어 털을 뽑다.”는 뜻이다.

37) 현대어로는 ‘간척하다’인데 뜻은 “간절하고 지성스럽다.”이다. 『표준국어대사전』

38) 중용 19장에 나오는 원문은 “燕毛(연모)는 所以序齒也(소이서치야)(잔치할 때 머리털의 색을 중시하는 것은 나이[齒(치)]의 순으로 차례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이다. 이기동(2006:177~180) 참조.

4. 마무리

한자 학습과 정보 취득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문헌의 정체성과 가치 내실화를 위한 학자들의 실천적 의지로 내용과 형식을 다듬은 자석 문헌들이 새롭게 편찬되었다. 1915년에 편찬된 『신자』은 한학자와 국어 학자가 함께 편찬한 현대적인 면모의 자석을 보여주는 사전이다. 이는 1909년에 편찬된 『석요』와 비교할 때 자석 수록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면모를 본고에서는 『신자』의 복수 한글 자석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자 자석 문헌 역사에서 자석 수록의 혁신을 보여주는 『훈몽』, 『주천』, 『자류』, 『석요』와 『신자』을 비교하였다. 이 5개 문헌에 공통 수록된 표제한자 중 『훈몽』, 『주천』, 『자류』, 『석요』에 한글 자석이 1개 제시되었는데 『신자』에는 2~7개의 한글 자석을 수록한 표제한자 82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신자』은 新字典例(신자전례) “此書用康熙字典爲臺本剪其繁衍補其闕漏兼收新製之字新增之義以應新時代之用故名曰新字典(차서용강희자전위대본전기변연보기궐루검수신제지자신증지의이응신시대지용고명왈신자전)”에서 알 수 있듯이 『강희자전』과 『전운옥편』을 기본 전거로 삼고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이전 시기의 자석과 새로운 시대에 쓰임을 바탕으로 자석을 세밀하고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전거 문헌의 한문 자석을 한글 자석으로 옮기는 데 있어 한문 해독과 국어의 문법을 고려하여 당대의 쓰임에서 이질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자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문 자석과 한글 자석이 1:1로 대응되어 자석 원문 일치를 보인다. 이러한 『신자』의 개신적 자석 제시 방식은 사전으로서의 정체성에 입각해 여러 전거 문헌에 수록된 표제한자의 의미 정보를 세밀하게 짚어 풍부하게 수록한 실용적 가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신자』에는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희귀어, 난해어들이 매우 많다. 이들의 의미나 형태

를 규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신자』에서 다수의 희귀어, 난해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신자』이 국어 어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임을 입증한다. 다양하고 정밀한 자석 자료 분석 연구가 지속되고 국어학, 한문학, 번역학, 사전학 등 인문학, 언어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가 자석 정립과 국어 어휘의 체계화, 올바른 고전 번역을 위해 지속되어야 할 연구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남광우, 『古語辭典』, 태학사, 2008.
 정윤용, 『字類註釋』, 건국대학교 영인본, 1985.
 지석영, 『字典釋要』, 亞細亞文化社, 1909.
 최남선, 『新字典』, 朝鮮廣文會編纂, 1915.
 최세진, 『訓蒙字會』,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2.
 『千字文』,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4.

2. 논문

- 박병철, 「漢字訓 語辭 代替의 原因에 관한 研究」,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77, 78 합병호, 1992, pp. 363-384.
 박병철, 「『주해 천자문(註解 千字文)』의 단수자석(單數字釋)과 문맥지식(文脈之釋)의 반영에 관하여」, 구결학회, 『구결연구』 17권, 2006, pp. 243-273.
 서수백, 「『字類註釋』의 同字異釋형 중출 표제한자의 새김과 분류-한자 새김 자료와 비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101호, 2022, pp. 1-37.
 서재국, 「新字典의 새김말에 대하여」, 효성여대 국어국문학과, 『國文學研究』

- 5집, 1976, pp. 223-240.
- 여찬영, 「『자전석요』의 한자 자석 ‘고을일홈’ 연구」, 언어과학회, 2003a, 『언어과학연구』 25권, pp. 195-214.
- 여찬영, 「조선조 언해서의 번역비평적 연구」, 배달말학회, 2003b, 『배달말』 33집, pp. 239-262.
- 이돈주, 「한자 의미의 변별성과 국어 자석의 문제-훈몽자회의 釋과 하주를 중심으로-」, 1985, 『같은 문선규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 pp. 133-158.
- 이준환, 「『자전석요(字典釋要)』의 체재상의 특징과 언어적 특징」, 반교어문학회, 2012a, 『반교어문연구』 32집, pp. 113-142.
- 이준환, 「朝鮮廣文會 편찬 『新字典』의 體裁, 漢字音, 뜻풀이」, 어문연구학회, 2012b, 『語文研究』 제40집, pp. 117-142.
- 전일주, 「강희자전과 한국 초기 자전 비교 연구-『자전석요(字典釋要)』와 『신자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한문교육연구』 26호, pp. 357-384.
- 최범훈, 「『註解千字文』의 복수자석에 대하여」,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1983, 『국어국문학 논문집』 제12집, pp. 1-23.

3. 단행본

- 강신항, 『全韻玉篇 奎章全韻』, 박이정, 2000.
- 박병철, 『한자 훈석 어휘 연구』, 이회, 1996.
- 이기동, 『大學○中庸 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 이기문,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1991.
- 신경철, 『國語 字釋 研究』, 태학사, 1993.

(투고일: 2023. 8. 13 심사완료일: 2023. 9. 22 게재확정일: 2023. 9. 25)

서수백
소 속: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주 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13-13
전자우편: sbseo93@cu.ac.kr

[Abstract]

A Study of Multiple Chinese Characters in the *『Shinjajeon』*

Seo, Su-B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lural Chinese characters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hinjajeon』*(1915). Korean scholar Lee In-seung and Korean language scholars Ju si-kyung and Kim Du-bong contributed to the writing. In addition to Chinese characters from the previous period, Similar Chinese characters were presented, or various part-of-speech Chinese characters we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contextual usage. One Chinese characters with the same meaning was suggested in the *『Hunmongjahoe』*, *『Juhaecheonjamun』*, *『Jaryujuseok』*, *『JajeonSeokyo』*. By the way, there are 82 Title Chinese characters in which 2~7 Chinese characters are presented in the *『Shinjajeon』*. The plural Chinese characters of *『Shinjajeon』* are divided into very detailed meaning Chinese characters of *『Jeonwoonokpeon』*, and each Korean Chinese characters is attached. also similar Chinese characters were presented, or various part-of-speech Chinese characters were presented. *『Shinjajeon』* is an invaluable document as an essential source for our study of lexical history, lexicography, and translation.

Key words: *『Shinjajeon』*, *『Hunmongjahoe』*, *『Juhaecheonjamun』*,
『Jaryujuseok』, *『JajeonSeokyo』*, *『Jeonwoonokpeon』*,
Multiple Chinese characters, Grammar Chinese
characters, Similar Chinese characters